

중기·벤처

중구난방 정부 지원사업 통합한 '중소벤처 24' 22일 시범운영

최원우 기자

입력 2020.07.21 12:00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시범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0여개 웹사이트에서 나눠서 제공하던 정보와 서비스를 모은 통합창구 '중소벤처24(www.smes.go.kr)' 서비스를 오픈해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 업무 특성상 정책 영역과 지원 대상이 넓어 창업,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판로개척·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30여개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정보를 얻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개별 사이트에 일일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63개 지원사업 신청, 8종 증명·확인서 발급을 한 곳에서

중기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개별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중소벤처 24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 24는 그간 개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던 63개 지원사업 신청과 8종의 증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기관별로 제공하던 각종 정책자금 관련 용자와 보증 등에 대한 정보도 중소벤처24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기관 전문가에게 온라인으로 상담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